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 온실가스 저감 효과 기대

3개월 단축하면 한마리당 10.4%저감 예상
농가소득도 적용 안한 농가보다 29% 올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한우(거세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은 기존 한우 사육기간 31개월을 28개월로 3개월 줄여 사육하는 기술로, 한우 사육 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해 한우 성장과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료비와 관리비는 줄일 수 있다. 사육기간을 3개월 단축하면 한우 한마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10.4%(약 46kg CO₂e)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전체 국내 사육 한우 거세우에 모두 적용한다면 연간 18만2,000톤 CO₂e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492만3,000톤 CO₂e(2018

년 기준) 대비 약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적용한 17개 농가(한우 2,130마리)의 평균 소득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농가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적용 농가의 사료비는 일반 농가보다 9.2% 낮았고, 출하월령은 2.6개월 짧은 28.2개월로 나타났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인 섬유질 배합사료(TMR) 배합비 프로그램을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nias.gakr)을 통해 보급하고 있으며, 2년 간 약 5,500건이 내려받기(다운로드)될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국립축산과학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축의 특성에 맞는 정밀 사육기술 개발과 사료 효율성을 높이

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가축의 성장 단계에 필요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사료 섭취량과 가축분 질소 발생량을 줄이는 정밀사육 기술 개발과 사료 효율성을 높이는 계통 육성 등이다.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대응 전담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정밀사육 기술개발 등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분야의 주요 온실가스는 메탄과 이산화질소로,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과정과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2018년 기준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 수준인 940만 톤 CO₂e로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분야별 2050 탄소중립 실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조달청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호남권 혁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16일과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열리는 호남권 전시회에는 2020년 11월 개최되었던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기업과 우수한 호남권 혁신기업 등 31개 기업이 참여한다.

혁신제품 '한눈에'... 조달청, 오늘까지 호남권 전시회

우수 기업 31곳 참여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호남권 혁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혁신조달제품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돼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조달정책방향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16일과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열리는 호남권 전시회에는 2020년 11

월 개최되었던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기업과 우수한 호남권 혁신기업 등 31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시회에서는 관여 내 정부·공공기관 구매담당자 600여 명이 제품을 참관,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6월 한 달 동안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3개 권역에서 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혁신조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당자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실

적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공공분야는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도록 혁신제품 지정 확대, 혁신구매 목표제 상향 등 혁신조달 정책을 정부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우수한 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한 통로가 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 병행 CEO클럽 회의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적자원')는 16일 전주상공회의소,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전북지역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일·학습 병행 CEO클럽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학습 병행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 병행 사업 설명과 (주)아이비헬스 김영현 대표이사의 일·학습 병행 운영 사례 발표에 이어 함께 한 기업체 CEO와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CEO는 "일·학습 병행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업무 및 조직 적응도가 높다"며 "지역 기업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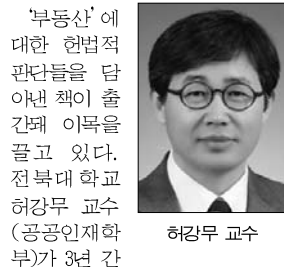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6일 전주상공회의소,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전북지역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일·학습 병행 CEO클럽 회의를 개최했다.

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인적자원 운영사업 공동위원장은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 기업지원 제도적 보완 장치를 구축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

이 참여해 꼭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산업계를 이끌어갈 동력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부동산 문제의 헌법적 판단

전북대 허강무 교수 '부동산헌법' 출간



허강무 교수



'부동산'에 대한 헌법적 판단들을 담아낸 책이 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북대 학교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가 3년간의 집필 끝에 최근 '부동산헌법, 부동산문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부동산에 관한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개정됐는지, 외국의 부동산에 관한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은 어떻게 체계화되고 구성돼 있는지, 부동산정책은 어떤 헌법 원리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입법되는 지, 부동산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 합법과 위법이 결정되고 판단되는 지, 2000년대 이후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부동산 관련 15개 헌법재판소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책에서 저자는 "부동산헌법"은 매우 낮은 용어이고, 우리는 '부동산헌법'이나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익숙해도 '부동산헌법'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동산헌법은 형용모순과 같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이유는 헌법이 '부동산정책'의 등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집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

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장소다. 그래서 저자는 집은 행복의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은 최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우리 헌법과 어떤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 합법과 위법이 결정되고 판단되는 지, 2000년대 이후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부동산 관련 15개 헌법재판소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책에서 저자는 "부동산헌법"은 매우 낮은 용어이고, 우리는 '부동산헌법'이나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익숙해도 '부동산헌법'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동산헌법은 형용모순과 같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이유는 헌법이 '부동산정책'의 등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집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

온라인 친환경인증 농식품 허위 표시 제품 단속 강화

농관원, 내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병, 이하 '농관원')이 7월 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농관원의 담당공무원이 친환경인증 광고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품별로 인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친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은 농식품부의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걸쳐 개발됐으며, 6월부터 시범적용 후 7월부터 본격 단속이 활용된다. 농관원은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인증 점검 RPA를 활용해 시·별·로 온라인

거래가 많은 친환경 판매제품을 모니터링 한 후, 친환경 관련 허위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판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수정토록 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앞서 RPA 프로그램을 활용, 인터넷에서 '유기농', '무농약' 또는 '친환경'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탐색해 판매업체에게 자동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이후 RPA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각 지위 및 사무소 단속반에 제공해, 허위 표시·광고 의심 제품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인증 취소 농식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GAP 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광고해 적발되면 친환경농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올 하반기 교육생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전북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하반기(14기) 교육생 12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점포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북지역 13기

교육생 5명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온·오프라인별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매장 실습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9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창업 실습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명을 각각 모집한다. 성공적으로 이수한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절차를 거쳐 우수교육생을 선발하고 사관학교 졸업 이후 본격적인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페이퍼, 골판지 사업 극대화 300억원 규모 설비 투자 진행

전주페이퍼가 골판지 원지 생산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ESG 경영을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전주페이퍼의 주요 사업 부문으로 자리 잡은 골판지 원지 생산량을 연간 약 20만 톤 추가해 총 100만 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규모다. 전주페이퍼는 이를 통해 현재 단일공장 국내 최대 골판지 원지 생산 능력을 한단계 더 강화해 국내·외 골판지 원지 공급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전주페이퍼는 이번 설비 투자를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지종 생산 용도의 설비를 골판지 생산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개조함으로써,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종 포트폴리오 전략 실행을 가능하게 하며, 생산성을 15%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SG 경영을 지속해온 전주페이퍼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열사인 전주원파워는 전력 및 스팀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는 탈질설비 구축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주페이퍼는 지난 2018년 골판지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골판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사적 운영 혁신 활동인 'TOP21'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골판지 사업을 극대화해 종합제지기업으로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국내 최대 신문용지 업체인 전주페이퍼가 명실상부한 골판지 중심의 종합제지기업으로 입지를 굳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페이퍼가 골판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은 장학문화재단, 소외 고교생 35명에 자전거 기증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우)은 지난 15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녹색환경을 위한 자전거 기증사업'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개인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 어려움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사물이 공존하는 자전거가 좋은 환경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우 이사장, 전북은행 서한국은행장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기증된 자전거와 안전 헬멧은 도내 소외계층 고등학교 3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전거 기증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도내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